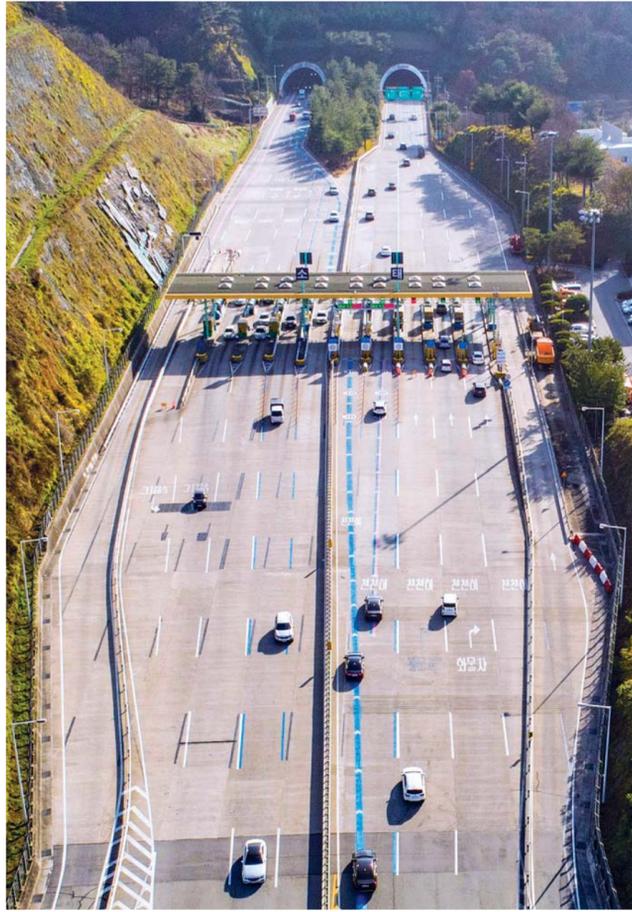


협약 바뀔 혈세 더 지원...법인세 등 환수 방안 찾아야



■ 감사원 '광주 제2순환도로 감사' 결과와 향후 과제

감사원이 지난 2016년 말 작성된 '제2순환도로 제1구간 민간투자사업 사업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도 감사원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사업 사후 관리실태'를 발표하면서 당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투자자인 맥쿼리와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감사 결과 투자자가 제2순환도로 제1구간 관리·운영을 맡은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광주시는 투자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 승소, 2심 일부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민선 6기 들어 소송에서 협상으로 전략을 바꾼 광주시는 서둘러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내용이 시의 발표와는 달리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투자자와의 협상상 계기가 마련된 만큼 광주시가 재정지출 축소, 통행료 인하 등 시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 법인세까지 내준 광주시-시민단체·전문가 이미 문제제기-광주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지난 2016년 12월 16일 맺은 변경협약의 핵심은 최소운영수

운영수입보장→투자비보전
3년간 재정지원금 32억 증가
협약 면밀 검증 재협약 나서야

입보장(MRG)방식을 투자비보전(MCC)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시는 이 같은 조치로 2028년까지 1014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MRG는 실시협약에서 약정한 추정 운영수입보다 실제 운영수입이 85%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추정 운영수입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방식이어서 시의 재정지원금이 급증했다. MCC는 주주투자금, 관리 운영기간 동안 이자(9.8%), 운영비, 법인세 등에서 실제 사업수입이 미달한 경우 시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MCC는 기존 투자자를 변경해야 하지만, 시는 맥쿼리를 그대로 투자자로 인정한 '대안적' MCC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협약 내용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협약을 변경하면서도 당초 취지대로 시의 재정지원금을 감축하는 것과 함께 투자

자의 미래 수익도 그대로 보장해줘야 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를 광주시가 부담하고, 신규민간투자금, 신규 민간투자수익금 등 새로운 조항들이 생겨나면서 최근 2년간 시의 재정지원금이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법인세 문제는 이미 전문가들의 검증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바 있으나 광주시는 이를 간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시와 맥쿼리와 맺은 협약의 부당성을 제기한 뒤 시가 12년간 행·재정력을 총동원한 결과라고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변경협약 면밀히 검증해야. 2016년부터 3년간 오히려 재정지원금 증가-지난 2018년 광주시가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게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기존 MRG보다 오히려 32억여원 증가했다. 2016년부터 3년간을 살펴보면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면서 19억여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1014억원의 절감했다는 민선 6기 광주시의 발표는 실제로 협약이 종료되는 2028년 거지로도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광주시에 따르면 맥쿼리가 100% 투자한 (주)광주순환도로투자에 지난 2018년 264억54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존 MRG 방식을 적용했다면 232억3600만원을 줘야 하는데, 협약 변

경 이후 오히려 32억18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시가 지난해 광주일보에 건넨 '협약 변경 전후 재정지원금 비교' 자료에서는 2018년 35억6300만원을 절감한다고 적혀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법인세다. 시가 납입해야 하는 법인세가 예측치 28억원과는 달리 112억원이 청구돼 절감 규모 추정치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미지급 재정지원금 851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시가 내겠다는 것이다. 시는 기존 자료에서 2028년까지 매년 법인세 추정치를 30억~35억원으로 설정해뒀다. 당연히 협약 변경에 따른 절감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번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고 투자자가 환급받은 법인세를 시가 돌려받으면 다소 재정지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맥쿼리가 과거에도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는 등 부정적인데다 시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률, 회계 등의 검토를 거쳐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감사원은 28일 "광주시가 지난 2년간 맥쿼리 측에 사업비 110억여원을 부당지급했다"고 밝혔다. 2순환도로 1구간 소태요금 소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 낭비·무자격자 승진 후보 명부 등재 등 감사원 '광주시 운영 감사' 2순환도로 변경협약 외 12가지 지적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광주시 기관운영 감사'에는 민선 6기 광주시와 (주)광주순환도로투자(맥쿼리) 간 맺은 2순환도로 1구간 운영방식 변경협약이 부정적하다는 것 외에도 10가지가 넘는 지적사항이 담겼다.

우선 탁상행정의 대표 사례로 기록될 만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부실 추진, 그에 따른 예산 낭비가 눈에 띈다. 지난 2016년 2월 복구로부터 관내 일곡 제3근린공원 부지(1만4313㎡)를 추천 받아 건립을 추진했는데, 2년이 지난 2018년 11월 그 부지 지하에서 4267t(추정)의 매립 쓰레기가 발견된 것이다. 1997년 이전 일곡지구 택지개발 당시 매립된 사업장폐기물로 처리 비용만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공사 중

단으로 광주시는 설계용역비 등 1억8600만원을 매몰비용으로 날리게 됐다.

문제는 광주시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기본적인 업무만 추진했다면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광주시는 일곡 제3근린공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부지로 확정하기 전인 2016년 2월 25일 해당 공원을 방문했는데, 당시 이미 공원 입구 좌측에는 가스 배출시설이, 우측에는 침출수 배출 시설이 설치돼 있었다"며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1월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 자격 없는 공무원을 승진 후보자로 등재한 사실도 지적됐다. 당시 4급

이던 해당 공무원은 2014년 징계처분 전력 등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하지 않아 승진후보 자격이 없는데도 명부에 부당하게 등재됐고, 결국 인사위원회를 거쳐 3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당시 업무 담당자를 경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17년 5급 일반인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 공고에서 명시한 임용자격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인물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한 것도 지적됐다.

이 밖에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 사업 추진 부적절, 상설 공연장 설립 목적의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 부적절, 파견 직원 결원 산정 부적절 등 이번 감사에서 모두 12가지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BTS 광주 사랑, 시민들이 응답하다

광주 출신 멤버 제이홉
'치킨누들수프' 커버댄스 도전
광주시 '빛튜브' 통해 공개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의 '치킨누들수프' 커버댄스에 도전한 광주 시민들의 영상이 28일 광주광역시 공식 유튜브 '빛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광주시는 '빛튜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킨누들수프' 가사에 등장하는 충장로·금남로를 시작으로 광주 대표 명소에서 촬영한 커버댄스 영상을 공개한다.

커버댄스에는 제이홉 모교인 국제고 후배, 빛고을노인건강당도 회원, 지역 국악인, 2019년도 광주시 신규 공무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공개되는 영상은 세계적 케이(K)팝 스타인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제이홉이 지난 9월 발표해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World Digital Song Sales) 차트에 7주 연속 진입하는 등 세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의 후배인 광주 국제고 학생, 지역 국악인, 새내기 공무원들이 BTS 노래 '치킨누들수프'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

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솔로곡 '치킨누들수프'(Chicken Noodle Soup)의 커버댄스 영상이다.

'치킨누들수프'는 음원 발매 직후 세계 69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올랐으며, 영국 '오피셜싱글 차트 톱 100'에서 82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81위를 기록했다.

특히 뮤직비디오는 지난 4일 1억 뷰를 달성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커버 영상이 다량 올라오는 등 현재까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광주 출신인 멤버 제이홉은 2015년 11월 발표한 'Ma City'에 이어 '치킨누들수프'에서도 고향 광주에 관한 가사를 담아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교육 청림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The 청림슬로건1면

행복하세요!

광주광역시교육청